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쿨' 리드보컬 이재훈 솔로 1집 '환상' 발표

해체된 그룹 '쿨'의 리드 보컬 이재훈이 솔로 1집 '환상'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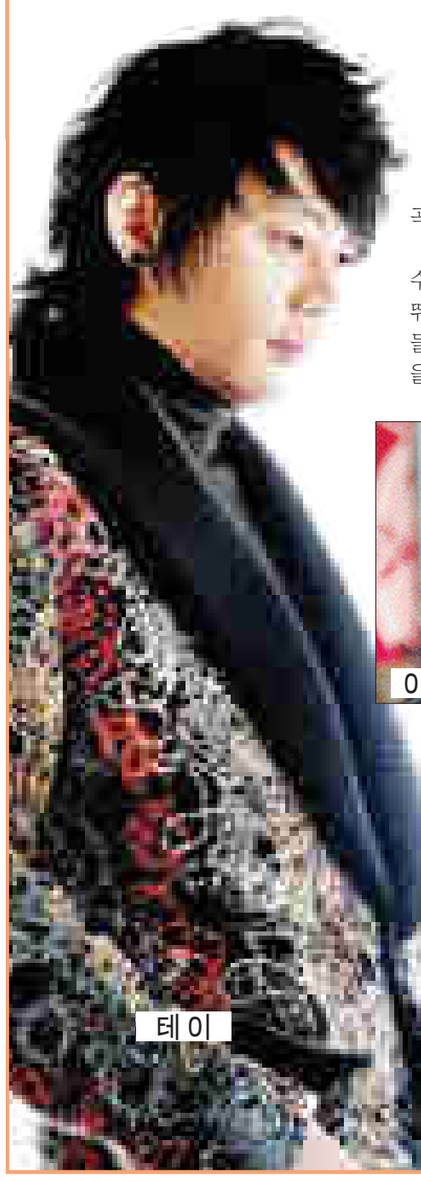
이재훈이 직접 앨범 프로듀서를 맡은 이번 음반에는 히트곡 제조기 윤일상이 곡을 쓴 타이틀곡 '환상'을 비롯, 동료 유리가 피처링에 참여한 '바보야' 등

모두 14곡이 실려 있다.

싸이와 호흡을 맞춘 '커플링', MBC 일일드라마 '나쁜 여자 착한 여자'에서 최진실 테마곡으로 사용중인 '건망증', 김진표의 랩이 돋보이는 '우린 다시 만나야 한다' 등도 눈길을 끌며 다른 가수의 앨범에 참여한 적 없는 김건모가 코러스로 참여한 것도 특징이다.

발라드가 돌아왔다

테이·이기찬 등 속속 컴백


테 이

이기찬

포지션

성시경의 '거리에서' 이루의 '까만 안경' 등 잔잔한 발라드 곡은 지난해말 부터 올초까지 많은 인기를 누렸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들에게 도전장을 던지며 발라드 가수들이 속속 컴백하고 있다. 이번에 팬들을 찾아온 가수들은 뛰어난 가창력을 바탕으로 한 호소력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들이라는 점에서 음반 시장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기찬은 2년 3개월만에 SG워너비의 히트곡들을 작곡한 조영수가 만든 감미로운 발라드 곡 '미인'을 들고 컴백했다. 이번 9집앨범에는 자신이 직접 작곡하고 이수영이 가사를 써서 함께 부른 '현실' 등이 담겨 있으며 화요비, 별, 클래지콰이의 알렉스 등이 '너에게로 날다'를 함께 불렀다.

이기찬은 영화배우로도 관객을 만날 예정. 2월말 개봉예정인 이무영 감독의 '아버지와 마리아와 나'에서 김흥수와 록밴드를 결성한 록커로 출연한다.

신세대 발라드 가수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테이도 9일 4집 앨범 '애인'을 내고 컴백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 곡인 '같은 베개'는 테이의 히트곡인 '사랑은…향기를 남기고', '사랑은…하나다', '그리움을 외치다' 등 테이의 히트곡을 만들어온 작곡가 황세준과 작사가 조은희가 손잡고 만든 곡.

'후회 없는 사랑' 'I love you' 등 애절한 목소리의 주인공 포지션은 5년만에 새 앨범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이동건·전인화·이유리 등이 주연을 맡은 단편영화 '애가' DVD를 함께 수록,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 활동하던 포지션은 이번 앨범에서 타이틀곡인 '하루'를 비롯, 정통 발라드 곡 '혼자', '왠지', '너 없는 하루' 등 15곡을 담았으며 이동건과 조관우가 피처링에 참여했다.

'노래 잘하는 가수'로 꼽히는 박효신도 3년 만에 5집 '더 브리즈 오브 시(The Breeze of Sea) : 더 발라드(The Ballad)'를 최근 출시했다.

박효신의 이번 앨범 특징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진한 소울 창법 대신 한층 가벼워지고 담백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는 것.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추억은 사랑을 닮아'를 비롯해 노라 존스의 '돈 노 와이(Don't Know Why)' 등 리메이크곡도 실었다.

그밖에 지난 1997년 고등학생의 나이로 데뷔한 뒤 '애송이의 사랑', '다 알아요', '아디오' 등을 연달아 히트시킨 후 버클리 음대로 유학을 떠난 여성 발라드의 대표주자 양파가 6년만에 새 앨범을 준비중이며 소속사의 분쟁을 끝낸 여성 가수 이수영도 새앨범을 준비중이다.

또 '좋은 사람', '그랬나봐'의 김형중은 중국의 실력파 아티스트 광량(光良)의 '동화'와 서정적 발라드 곡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등이 수록된 음반을 발표하고 남자 발라드 가수 대열에 합류했다.

그밖에 지난 연말 '까만안경'으로 발라드계를 평정했던 이루는 신곡 '흰눈'으로 인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성시경도 후속곡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콩트의 부활

스타들 망가지니 박장대소 '헤이헤이헤이 시즌 2' 인기

스타들이 코믹한 연기를 펼치는 콩트 SBS TV '헤이헤이헤이 시즌2'(연출 남승용)가 인기를 끌고 있다.

방송 10회(1월18일) 만에 KBS 2TV '해피투게더-프렌즈'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목요일 밤 11시대를 평정한 이 프로그램은 한동안 뜸했던 콩트를 부활시키며 TV 쇼 · 오락프로그램 시장에 새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헤이헤이헤이'는 2003년 신동엽 · 김원희 콤비의 진행으로 큰 인기를 모았던 프로그램. 전편 제작진이 다시 뭉쳐 만드는 '헤이헤이헤이 시즌2'는 신동엽 · 김원희 외 현영, 이경실, 이종수를 고정 멤버로 보강하고 매회 내로라 하는 스타들을 게스트로 초대해 다채로운 콩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스타들은 스스로 망가진다.

첫 출연에서 밥을 먹다가도 발을 만지는 버릇 때문에 혐오감을 주는 '발 만지는 남자'로 히트를 쳤던 MC몽을 비롯,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스타들은 하나같이 적극적으로 코믹 연기에 몸을 던진다.

스토커 같은 노처녀 역을 맡은 김정은은 대본 회의에 세 차례나 참여하며 아예 대본을 직접 써오기도 했다.

늘 반듯한 이미지의 정찬은 '떡진' 머리에 자장면을 지저분하게 먹는 백수 남편 역을 맡았는데 그 역시 작가진이 써온 대본을 보고 더 '세게' 고쳐 달라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MC인 신동엽과 김원희의 탄탄한 연기력과 센스는 이 프로그램을 살리는 일등공신이다.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내고 디테일까지 살리려면 연기자 자신의 개성과 애드리브, 아우라가 아주 중요한데 두 사람은 삼박자를 모두 갖췄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여기에 공들인 제작과정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제작진은 매주 월요일 평균 16시간 동안 촬영을 하고 주 4일간 아이템 및 대본 회의를 한다.

이와 함께 갖가지 사회풍자적 소재를 개발하고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도 인기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10 BOX OFFICE

영화

(단위:명)

순위	제목	서울관객	전국누계
1	그놈 목소리	24만 7천	140만 8천
2	최강로맨스	5만9천100	1백만4천200
3	황후花	5만 7천200	80만 1천900
4	클릭	5만3천300	17만6천400
5	아포칼립토	4만5천100	17만700
6	미녀는 괴로워	4만500	643만3천700
7	미스포터	2만1천900	29만3천 600
8	로보트태권V	2만100	61만6천100
9	천년여우 여우비	2만	35만2천
10	스쿠프	1만7천100	4만100

〈자료제공:필름 2.0〉

T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시청률	
1	주몽	MBC	49.2
2	하늘만큼 땅만큼	KBS1	24.7
3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SBS	23.5
4	긴급출동 SOS 24	SBS	22.4
5	거침 없이 하이킥	MBC	21.9
6	누나	MBC	21.6
7	연개소문	SBS	20.8
8	대조영	KBS1	20.6
9	외과의사 봉달희	SBS	19.9
10	일요일 일요일밤에	MBC	19.7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거룩한 계보	드라마
2	해바라기	액션
3	마음이 …	드라마
4	Mr.로빈 꼬시기	로맨스
5	판의 미로- 오필리아와 세 개의 열쇠	판타지
6	미션 임파서블3	액션
7	일본침몰	액션
8	가문의 부활	코미디
9	열혈남아	드라마
10	라디오 스타	드라마

〈자료제공:씨네타운〉

가요

순위	제 목	가 수
1	팬	에픽하이
2	안녕	KCM
3	새 살	먼데이키즈
4	눈물이 나요	이수영
5	기다릴게	타이푼
6	가거라 사랑아	서문탁
7	흰눈	이루
8	습관	유니
9	마리아	김아중
10	그때가 좋았어	홍경민

〈자료제공:벅스뮤직〉